



[산업] LS산전 북미 최대 에너지저장사 인수 05



[산업] 이보다 더 쌀순 없다 조기구매 할인 등 차량 구매 최적기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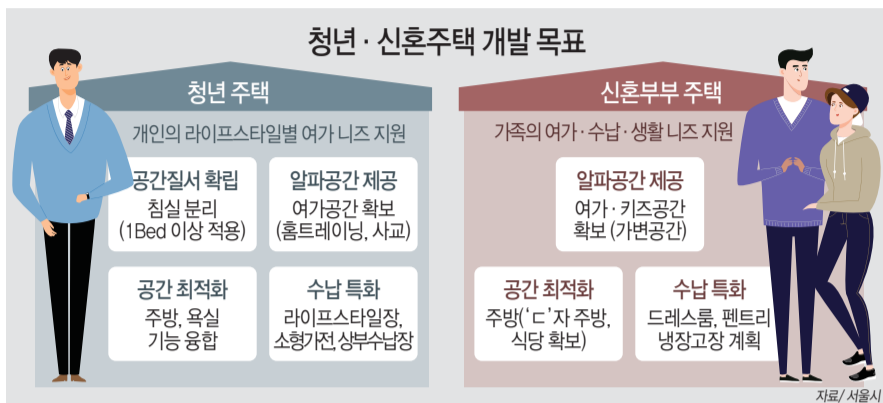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정릉에 첫 공급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청신호' 출범 주방가구 선택·육아·취미공간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 활용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청신호'를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1호 청신호 주택인 '정릉동 행복주택' 166세대를 내년 7월 완공해 공급할 계획이다.

청신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호(戶)'에서 한 글자씩 따 이름 지었다. 주거, 육아,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청신호를 권다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서울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청신호 주택을 설계했다.

맞춤형 설계는 ▲공간질서 확립 ▲알파공간 제공 ▲공간 최적화 ▲수납특화 등의 네 가지에 주안점을 뒀다. '나만의 한 평(3.3㎡)'을 제공해 SH공사의 기존 표준평면보다 면적을 확대하고(원룸형 17㎡→20㎡, 투룸형 36㎡→39㎡) 수납,

배치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같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청년노마드형(원룸형) ▲워크&라이프형(거실-침실 분리) ▲소셜다이닝형(거실 확장형)의 3가지 유형을 선보인다. 청년들이 몸만 들

어오면 살 수 있게 빌트인 가구가 완비된 일체형으로 공급한다. 요리를 하지 않는 생활 양식을 고려, 주방가구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욕실도 건식·습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육아 중심으로 기획된 기존 주택과 달리 자녀가 없는 부부까지 고려해 가변형으로 지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 양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부부만 생활할 때는 게임, 음악감상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전용공간 '알콩달콩 β룸'을 배치했다.

외부 현관문 근처에도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단지 곳곳에는 지역의 공간복지 역할을 할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신혼부부 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놀이터와 키즈카페 등을 설치한다. 청년주택은

약기연주, 공동작업 등 집에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

시는 내년에 공급할 예정인 매입형 임대주택 중 2500세대를 청신호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제 임대주택도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시대를 열겠다.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 공공 임대주택으로 본격 출범하는 '청신호'가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며 "같은 공간이라도 실제 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생활방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주거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임대주택의 품질과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이재명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전격 추진

2020년부터 공공주택 대상 적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공공분야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며 '후분양제'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 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227세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 /경기도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 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이후 경기도사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000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배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완공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날 진행된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에서 진행됐다.

이 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소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공도시연구실장, 이준표 도시주택실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정일현 주택사업처 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분양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각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북한군 묘지 '평화의 공간'으로 재탄생

관리주체 국방부서 경기도로 이관

북한군 묘지 시설의 관리주체가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다.

도는 지난 3일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국방부와 함께 '북한군 묘지시설 이관관련 실무협의 회의'를 갖고 국방부의 시설 관리 및 운영권 이전 요청을 평화인도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국방부는 북한군 유해 824구가 안장된 파주시 적성면 일대 5,900여㎡ 규모의 북한군 묘지시설을 경기도가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 이관 및 조성 비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묘역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관된 북한군 묘역을 민족분단

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로 이관되는 북한군 묘역은 국방부가 제내비협약(적군의 사체중증)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조성해 관리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북한군 묘역을 전쟁의 아픔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가 견고해지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옥수수유 섞은 가짜 들기름 판매 일당 적발

서울시, 식품제조업자 2명 형사입건

값싼 옥수수유를 섞은 가짜 들기름을 만들어 판매해 온 일당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가짜 들기름은 진짜의 10~20%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으나 눈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워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A업체는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섞은 기름을 100%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1만리터,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A업체 대표 J(73) 씨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저가의 가격으로는 들기름 100%를 사용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 옥수수유를 혼합했다고 진술했다.

B업체는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



A업체 공장 내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한 뒤 원재료 들기름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 2017년부터 6400리터, 4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

이들은 또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원재료를 거짓으로 표시해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민사단은 이들 업체에 대한 검찰 송치와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세계 16개 도시 '노동분야 국제기구' 만든다

서울 등 '좋은 일자리 도시협약체' 창립

서울시와 뉴욕, 빈, 밀라노 등 세계 16개 도시가 '좋은 일자리 도시협약체' 창립을 추진한다. 협약체는 일자리·노동 분야 최초의 도시정부 국제기구로 국내 도시로는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11~1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포럼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소득·일터 불평등의 해법을 모색하고 협약체 창립에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에는 국내·외 16개 도시가 참여해 각 도시의 노동정책을 공유한다. 런던생활 임금재단, 캐나다미디어걸드(CMG), 독일

노총(DGB), 남아공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이 노동현장이 당면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다.

포럼 주제는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 시티'다. 유니온 시티는 도시정부가 노동환경, 노동시장과 임금 등의 기준을 설정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도시를 말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설계자였던 경제학자 데이비드 와이(David Weil)가 '유니온시티'를 통한 불평등과 균일일터 해결'을 주제로 기조연설 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방안과 도시의 정책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김현정 기자